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에 의한 남성 캐주얼웨어 이미지 지각 연구

강승희 · 이명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Image Perception of Men's Casual Wear Using Photograph and Computer Simulation Picture

Seung-Hee Kang · M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08년 1월 25일), 수정일(1차 : 2008년 9월 25일, 완료일 : 2008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28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types and the colors of men's casual wear, hairstyles, and the methods of stimulus manufacture on men's image perception. The subjects were 360 women from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 clothing types used for the study were a sweater and a jumper(casual jacket) with jean pants. The clothing colors were beige, indigo, and red. Two hairstyles, the short and the medium length hairs, were compared. Two types of stimuli, the photograph and the computer simulation picture,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disclosed five dimensions on men's image: neatness, individuality, abi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In general, the photograph stimuli were evaluated more positively in activity, individuality, and sociability than the picture stimuli. The sweaters were perceived higher in abi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than the jumpers. The Indigo color was evaluated as neat. The medium length hairstyles were perceived as neat and the short hairstyles were perceived as sociable. The jumpers were evaluated lower in individuality in the picture stimuli than in the photograph stimuli. The beige and indigo colors were evaluated to be neater in the picture stimuli than in the photograph. When using the picture stimuli, the men's image wearing the sweaters with the medium length hairstyles were evaluated lower in individuality. When using the photograph stimuli, the men's image wearing the sweater with the short hairstyles were evaluated higher in activity. Men's image wearing the indigo jumper and the beige sweater with medium length hairs were evaluated as high in neatness.

Key words: The method of stimulus manufacture, Casual wear, Clothing type, Clothing color, Hairstyle; 자극물 제작방법, 캐주얼웨어,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

I. 서 론

사람들은 의복을 통해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동시

에 자기 옷차림으로 사회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의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들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개방적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남성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며,

[†]Corresponding author

E-mail: mhlee@sungshin.ac.kr

본 논문은 200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구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인 엠브레인(2006)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모를 가꾸는 남성에 대하여 '보기 좋다'고 한 경우가 72.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유행의 흐름이 빨라지고, 패션디자인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남성복 시장은 격식을 차린 정장류를 대신하여 비즈니스 캐주얼웨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높아진 패션의식으로 실용적이고 편안한 캐주얼이 주목 받음에 따라 남성 캐주얼복에 최신 트렌드가 적용되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남성 스트리트 패션을 조사한 박혜원(2006)의 연구에서 남성복 상의는 점퍼류나 셔츠, 재킷이 선호되었고, 하의는 청바지가 가장 인기가 있었으며, 패션 이미지는 청바지에 편한 티셔츠나 셔츠를 코디하여 활동성을 강조한 액티브 컴포트(comport) 캐주얼 이미지가 가장 선호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남성복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들은 의복유형(남미우, 강혜원, 1994; 신소진, 1994; 이선경, 1993; 이은미, 1992; Bell, 1991)과 의복색(김현지, 2003; 이항미, 김재숙, 1998; 임지영, 1996; Molloy, 1978)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의복과 함께 남성의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이미지를 평가하는 자극물은 선 그림(김재숙, 1991; 류지은, 2001; Paek, 1986), 색채를 사용한 그림자극물(김현지, 2003; 남미우, 강혜원, 1994; 이정교, 2000; Bell, 1991), 사진자극물(신소진, 1994; 이선경, 1993; 이은미, 1992) 등과 함께 컴퓨터그림을 자극물로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송선옥, 이인자(2001)는 남자의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에 대한 연구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체형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컴퓨터그림을 자극물로 사용할 때에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형태나 색을 변화시키는 방법(강경자와, 2007)과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이항미, 김재숙, 1998; 임지영, 1996)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다양한 의복디자인의 자극물 제작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림은 실제 인물의 사진보다 인위적이며 의복의 영향이 확대되어 나타날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자극물을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라 이미지의 시각적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물사진과 컴퓨터에 의한 그림자극물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전체적인 남성 외모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성 캐주얼웨어와 헤어스타일을 외모단서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의 캐주얼웨어의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남성의 사회생활에서 바람직한 외모단서를 이해하면서 의복의 인상형성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남성의 의복유형 이미지

의복이미지는 의복을 통해 나타나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의복의 구성요소에 따라 이미지가 달리 표현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의복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황진숙, 나영주, 1999). 배혜진, 정인희(2006)는 대학생들의 의복추구이미지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스포티한 이미지, 클래식한 이미지, 자연스러운 이미지, 심플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들은 독특한 이미지는 지양하고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장 추구하였으나, 스포티한 이미지나 클래식한 이미지와 같이 의복착용상황에 따라 추구 정도가 결정되는 이미지도 있었다. 노지영(2001)의 연구에서 직장 남성의 추구이미지는 감각적인, 능력 있는 활동적인, 단정한/자신 있는, 편안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황진숙, 나영주(1999)의 남자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연구에서는 강한-약한, 부드러운-딱딱한, 젊어 보이는-성숙한, 남성적인-여성적인, 고귀한-서민적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남자 대학생들의 다수는 강하고 젊어 보이며 남성적인 이미지의 의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연, 이경희(2006)의 연구에서 남성 판매사원의 정장스타일에 대한 시각적 평가는 매력성, 능력성, 부담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Sebastian and Bristow(2008)는 남녀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의복지각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정장 의복은 캐주얼 의복보다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호감도가 낮게 지각되었으며, 이러한 의복스타일의 효과는 여자 교수가 남자 교수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박순천, 이순홍(2003)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마른형과 표준형은 싱글 여밈의 경우 줄무늬일 때 짧고, 현대적으로 평가되었고, 민무늬일 때 가장 노숙하게 평가되었다. 비만형은 싱글 여밈의 경우 체크무늬가 가장 친근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이정교(2000)는 의사가운 착용자의 경우 기존의 가운 길이어면서 흰색이고 테일러드 칼라인 경우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로 지각하였고, 허벅지 길이의 의사가운 착용자를 가장 현대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보수성 평가에서는 가운 색상이 영향을 주어, 파란색 의사가운 착용자를 가장 보수적이고 차가운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2. 의복색 이미지

색은 의복에 있어 가장 큰 표현적인 요소이며,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강혜원, 1995). 또한 적합한 색채의 의복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에서 알맞은 외모를 지니게 하며, 개인의 성격, 나이, 성별 등이 색채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다(Chambers, 1965). 김영인, 한소원(2000)의 연구에서는 정장의 경우 무겁고 어두우며 차분한 색채의 의복을 선호한 반면, 캐주얼웨어의 경우는 산뜻하고 선명한 색채의 의복을 선호하였다. 남미우(1992)의 연구에서 검은색은 엄격한 색(stark color)으로 가장 격식 차린 정도를 나타내며, 감색(navy blue)은 덜 격식 차린(formal) 것이나 차가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어두운 회색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Molloy(1978)는 남성복에서 감색이 정장색으로 가장 좋고 그 다음 회색 등이 적합하며 같은 색이라도 연한 색보다 진한 색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넥타이 색은 수트와 셔츠보다 진하고 채도가 낮은 것이 권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Radeloff(1991)는 중명도와 저채도의 의류소재가 고명도, 고채도보다 더 선호된다고 하였으며, Francis and Evans(1988)는 선명한 고채도의 색보다 저채도의 의복이 착용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짙은 색 의복이 관리직 지원자의 능력평가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범피자를 평가하는 실험(Vrij, 1997)에서는 검정색 의복착용자가 밝은색 의복착용자보다 더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인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김현지(2003)는 남성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연

구한 결과 감색 재킷-파랑색 셔츠-노랑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역동적인 인상이 형성되었고 회색/검정색 재킷-파랑색 셔츠-복합색 넥타이가 가장 역동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평가성 요인은 감색/검정색 재킷-흰색 셔츠-감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높았고, 감색 재킷-흰색 셔츠-감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가장 친숙한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이항미, 김재숙(1998)의 남성의 인상차원에 대한 연구에서 의복색은 평가적 차원과 사교적 차원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평가적 차원에서는 감색 의복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지적이고 예의 바르며 신뢰감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교적 차원에서는 적벽돌색 의복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편안하며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영(1996)의 연구에서는 능력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감색 양복에 유사한 배색의 체크, 페이즐리, 줄무늬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독특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베이지색 양복에 대비된 색의 추상무늬나 꽃무늬 넥타이를, 온유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베이지색 양복에 대비색의 체크무늬나 꽃무늬, 추상무늬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매력있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감색 양복에는 유사 색의 넥타이를, 베이지색 양복에는 대비 색의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의복색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이나 연구에 따라 다르고 비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색이 단일 단서에 의한 결과 뿐 만 아니라 의복형태, 맥락 등 다른 변인과 함께 전체적인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헤어스타일 이미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헤어스타일은 지각대상자가 지각자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단서로 작용하며, 상대방의 이미지 평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윤소영(2001)은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 요인을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 개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호의성은 긴 머리, 커트머리, 단발머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세련성은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가 모두 긴 머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품위성은 긴 머리 스타일이 가장 높았고, 단발머리 스타일이 가장 낮았다. 개성 요인은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가 긴 머리에 비해 더 높았다.

Peterson and Curran(1976)은 남성 머리형의 변화

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짧은 머리의 남성은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게 보였으며, 짧은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수적인 반면, 긴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다 진보적으로 나타났다. 임남영, 강승희(2003)는 남성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인, 학생 모두 스포츠형의 헤어스타일이 일반형의 헤어스타일보다 사교성이 높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김재숙, 류지원(2004)은 남성의 갈색과 검은 갈색의 짧은 머리는 사교적 이미지가 높고, 약간 짧은 머리는 역능성이 높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하경연, 이명희(2008)는 남자의 웨이브 헤어는 스트레이트 헤어보다 품위는 낮게, 개성은 높게 평가되며, 특히 어두운 톤의 검정색 스트레이트 헤어가 가장 품위 있고, 어두운 톤의 검정색 웨이브 헤어는 활동성이 높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준 실험방법으로 실험설계는 2x2x3x2(자극물 제작방법x의복유형x의복색x헤어스타일)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자극물 제작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그림과 실물사진을 사용하였다. 의복유형은 점퍼(캐주얼 재킷)와 스웨터였고, 자극물의 하의는 청바지를 착용하였다. 의복색은 베이지색, 남색, 빨강색을 사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스포츠형 스타일의 짧은형과 일반 스타일의 중간형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설계의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사진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20대 연령의 남성 모델에게 실험의복을 착용시켜 사진촬영을 하였고, 컴퓨터 그림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물사진과 같은 외모를 표현하였다. 그림의 얼굴 부분은 사진자극물의 얼굴을

합성하였다.

측정도구는 남성 의복착용자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극물 속 의복착용자에 대한 응답자의 이미지 지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자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강혜원, 이주현, 1990; 남미우, 강혜원, 1994; 주소현, 이경희, 1999)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용어는 중복되는 것과 조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외시켜, 총 24개의 형용사쌍을 선정하였으며, 7점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에 선호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한 개 더 포함시켜 총 25개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근교에 거주하는 여대생 및 직장 여성 360명이었다. 총 24개의 자극물을 사용하였으며, 1명의 피험자는 2개씩 조합된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개의 자극물은 28~30명이 평가하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 산출, 사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의복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의복이미지를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4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5개 요인을 택하였다. 이때 요인의 내용과 문항이 일치하지 않는 2개 문항을 제외하고 22개의 문항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요인이 선택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

<표 1> 요인설계의 변인 조작내용

자극물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	요인설계
	점퍼/스웨터	베이지색/남색/빨강	짧은형/중간형	
사진/컴퓨터그림	○		○	2x2x2
	○	○		2x2x3
		○	○	2x3x2
	○	○	○	2x2x3x2

<표 2> 의복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부하량				
	요인 1 단정성	요인 2 능력	요인 3 개성	요인 4 활동성	요인 5 사교성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82	.09	-.15	.09	.25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78	.08	.07	.29	.01
점잖은 - 점잖지 않은	.74	.27	-.20	-.09	-.13
차분한 - 요란한	.61	.10	-.41	.12	-.17
예의 바른 - 예의 없는	.57	.26	-.28	-.21	.19
신중함 - 경솔함	.43	.40	-.30	-.25	.06
유능한 - 무능함	.17	.70	.10	.11	.13
품위 있는 - 품위 없는	.37	.68	-.03	-.08	-.03
전문적인 - 전문적이지 않은	.10	.65	.21	.05	.13
노련함 - 미숙함	-.10	.64	.26	.31	.05
지적인 - 지적이지 않은	.45	.61	-.11	.07	.07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13	.23	.75	.16	.05
개성 있는 - 개성 없는	-.19	.34	.70	.26	.16
남들과 다른 - 남들과 비슷한	-.07	.09	.69	-.10	.21
무난함 - 무난하지 않은(R)	.43	.15	.62	.26	.06
캐주얼함 - 포말함	.18	-.09	.05	.75	.06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09	.05	.08	.67	.40
보기 좋은 - 보기 싫은	.27	.44	.06	.63	.03
답답함 - 편안함(R)	.26	-.28	.17	.47	-.20
자연스러운 - 부자연스러운	.33	.26	-.45	.47	.22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20	.12	.02	.18	.83
적극 - 소극적	-.03	.12	.33	.21	.72
고유치	3.571	3.055	2.784	2.420	1.658
전체변량 (%)	16.231	13.885	12.655	10.999	7.535
누적변량 (%)	16.231	30.116	42.771	53.770	61.305

R: 역산 문항, α 신뢰도: F.1=.83, F.2=.76, F.3=.77, F.4=.70, F.5=.64

와 같다.

요인 1에서 요인 5까지의 각 요인의 고유치는 3.571, 3.055, 2.784, 2.420, 1.658이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0.43 이상이었고 요인 5까지의 누적변량은 61.305%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단정성, 능력, 개성, 활동성, 사교성이 각각 .83, .76, .77, .70, .64로서 신뢰도가 만족할 만 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5개의 요인은 요인의 문항 점수를 합하여 문항 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주효과를 보면 자극물 제작방법은 단정성, 개성, 활동성, 사교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능력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각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개성, 활동성, 사교성 평가에서 사진자극물이 그림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단정성의 평가에서는 사진보다 그림이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이는 의복을 그림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못하여 사진에 비해 단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유형은 능력, 활동성, 사교성 평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스웨터 차림이 점퍼보다 더 능력 있고, 활동적이며, 사교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황미선(2004)의 연구에서 셔츠 위에 스웨터를 착용하는 것이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고, 캐주얼이 정장이나 세미캐주얼보다 활동적

<표 3>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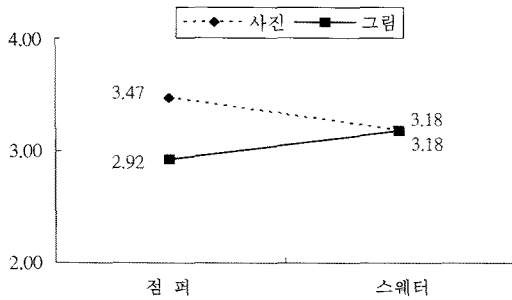
변량원	df	단정성 F	능력 F	개성 F	활동성 F	사교성 F	
자극물 제작방법(A)	1	5.61*	1.87	7.86**	18.16***	47.51***	
의복유형(B)	1	.88	8.56*	.41	6.60**	9.55**	
의복색(C)	2	31.88***	2.97	58.55***	.57	10.67***	
헤어스타일(D)	1	7.50**	.63	2.37	.69	5.49*	
A×B	1	.98	2.32	12.24***	.54	.59	
A×C	2	8.09**	1.04	4.47*	1.76	2.89	
A×D	1	.12	5.16*	.66	.54	1.87	
B×C	2	.35	.37	.35	2.74	.36	
B×D	1	.01	.74	.38	.40	2.47	
C×D	2	1.21	.31	.38	.40	2.47	
A×B×C	2	2.76	2.25	.75	2.29	5.86**	
A×B×D	1	3.21	1.28	5.35*	4.65*	.54	
A×C×D	2	1.34	1.69	1.27	.98	.23	
B×C×D	2	3.29*	2.26	1.95	1.75	.61	
A×B×C×D	2	2.15	2.60	.53	3.59	.63	
집단 내 오차	687						
변인	속성	N	M	M	M	M	
자극물 제작방법	사진	319	4.57	3.73	3.07	4.90	4.57
	그림	392	4.71	3.66	2.84	4.62	3.99
의복유형	점퍼	328	4.61	3.59	2.96	4.66	4.13
	스웨터	383	4.68	3.78	2.92	4.81	4.36
의복색	베이지색	230	4.78a	3.64b	2.70b	4.70	4.14b
	남색	237	4.91a	3.81a	2.56b	4.75	4.08b
	빨강	244	4.27b	3.64b	3.54a	4.78	4.52a
헤어 스타일	짧은형	361	4.55	3.66	3.01	4.77	4.35
	중간형	350	4.74	3.73	2.87	4.72	4.15

* $p<.05$, ** $p<.01$, *** $p<.0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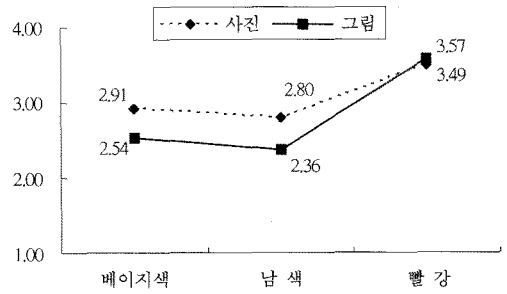
으로 평가되었던 송선옥, 이인자(200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의복색은 단정성, 개성, 사교성 평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남색은 단정성은 높으나 사교성, 개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빨강은 단정성은 낮지만 매우 개성적이고, 사교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이명희, 홍선옥(2004)의 연구에서 흰색, 검정, 남색이 단정성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이향미, 김재숙(1998)의 연구에서 사교적 차원에서 적별돌색 의복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헤어스타일에 따라 단정성과 사교성 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중간길이의 일반형 헤어스타일이 짧은형보다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으나 사교성은 짧은형 헤어스타일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의 상호작용효과를 연구한 김재숙, 류지원(2004)의 연구에서 남성의 짧은 머리가 가장 사교적이었던 결과와 일치하며, Peterson and Curran(1976)의 연구에서 짧은 머리의 남성이 더 적응력이 높게 보였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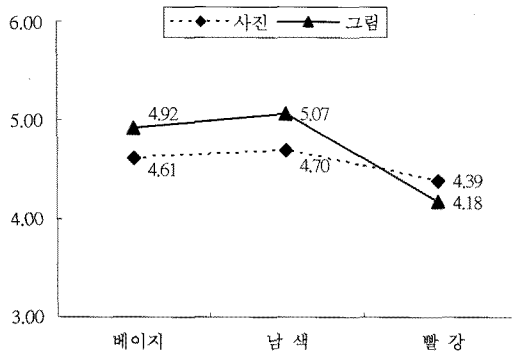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한 결과,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에 따라 개성 평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스웨터 차림은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개성 평가의 차이가 없었으나 점퍼 차림은 사진보다 그림자극물에서 개성이 더 낮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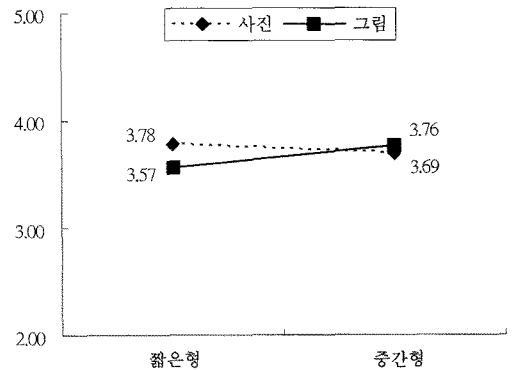
<그림 1> 개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3> 개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2> 단정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4> 능력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에 따라 단정성과 개성 평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3>과 같다. <그림 2>에서 볼 때 빨강은 그림보다 사진자극물의 경우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고, 베이지색과 남색은 그림자극물에서 단정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그림 3>에서 빨강은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베이지색과 남색은 그림자극물이 사진자극물보다 개성이 더 낮게 평가되었다. 단정성 및 개성 요인에서 그림이 사진보다 더욱 다양하게 지각되었는데 이것은 그림의 색이 사진의 색보다 더 뚜렷하게 구분되어 표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에 따라 능력 평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짧은형 헤어스타일은 사진보다 그림자극물의 경우 더 능력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은 자극물 제작방법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교성 요인은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표 4>,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빨강 스웨터를 착용한 사진이 가장 사교적으로 지각되었고, 베이지색 점퍼를 착용한 그림은 가장 사교성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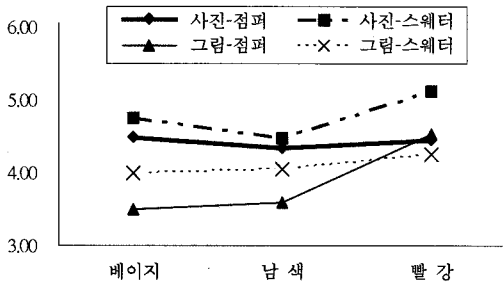
개성, 활동성 평가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

<표 4> 사교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에 따른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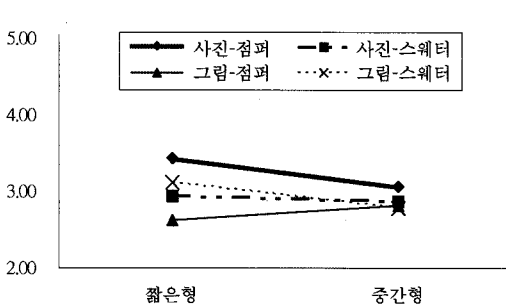
요인	자극물	의복유형			의복색		
		점퍼	스웨터		베이지색	남색	빨강
사교성	사진	4.47	4.32	4.42	4.71	4.45	5.07
	그림	3.48	3.58	4.50	3.97	4.03	4.23

작용효과가 있었는데, 각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형태는 <표 5>, <그림 6-7>과 같다.

<그림 6>에서 개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사진자극물인 경우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스웨터를 착용한 경우 개성이 낮게 평가된 반면, 그림자극



<그림 5> 사교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 유형, 의복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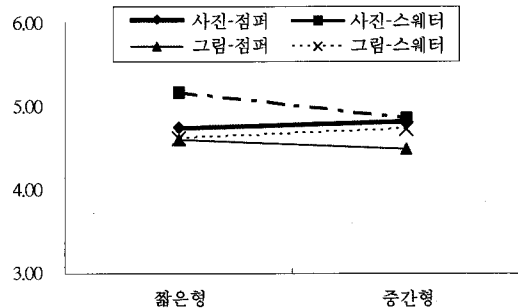
<그림 6> 개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 유형,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물인 경우는 짧은 헤어스타일의 남성이 점퍼를 입은 경우는 사진보다 훨씬 더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그림 7>에서 활동성 평가의 경우 사진자극물은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스웨터를 착용하였을 때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점퍼 차림을 했을 때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림자극물은 짧은 헤어스타일의 남성이 스웨터를 착용 했을 때도 사진보다 더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모든 요인의 평가에서 4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정성 요인은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표 6>, <그림 8>과 같다. 단정성 평가에서 빨간색 옷은 의복유형 및 헤어스타일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단정성이 낮게 평가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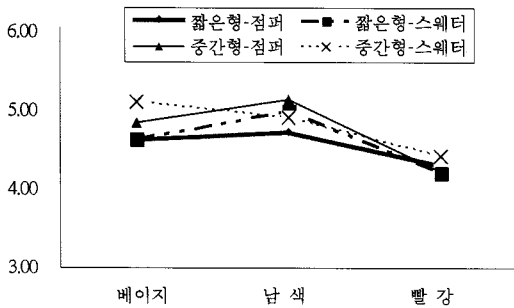
<그림 7> 활동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 유형,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표 5> 개성, 활동성 평가에 대한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헤어스타일에 따른 평균치

요인	자극물	의복유형	점퍼		스웨터	
			헤어		헤어	
			짧은형	중간형	짧은형	중간형
개성	사진		3.41	3.06	2.93	2.87
	그림		2.62	2.81	3.10	2.78
활동성	사진		4.74	4.83	5.16	4.86
	그림		4.60	4.49	4.62	4.72

<표 6> 단정성 평가에 대한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평균치

요인	헤어	의복유형	점퍼			스웨터		
			의복색			의복색		
			베이지색	남색	빨강	베이지색	남색	빨강
단정성	짧은형		4.61	4.70	4.28	4.61	4.95	4.19
	중간형		4.82	5.10	4.21	5.07	4.88	4.40



<그림 8> 단정성 평가에 대한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었으나 남색인 경우 남색 점퍼를 착용하고 중간형 헤어스타일을 한 경우가 가장 단정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베이지색의 경우 베이지색 스웨터를 착용하고 중간형 헤어스타일을 한 경우가 가장 단정성이 높았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극물 제작방법, 남성 캐주얼웨어의 유형과 색, 헤어스타일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결과 남성의 이미지는 단정성, 능력, 개성, 활동성, 사교성의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자극물 제작방법, 의복유형, 의복색,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자극물 제작방법은 개성, 활동성, 사교성 요인의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사진자극물이 그림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자극물 제작방법은 단정성의 평가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사진보다 그림이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의복유형에 따라 능력, 활동성, 사교성 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스웨터 차림이 점퍼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의복색은 단정성, 개성, 사교성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남색은 단정성은 높은 편이었으나 사교성, 개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빨강은 매우 사교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헤어스타일은 단정성과 사교성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중간 길이의 일반형 헤어스타일이 짧은형보다 더 단정하게 지각되었고, 짧은형 헤어는 사교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유형의 경우 개성 요인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점퍼 차림이 사진보다 그림자극물에서 개성이 더 낮게 평가되었다.

자극물 제작방법과 의복색의 상호작용효과는 단정성과 개성 평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베이지색과 남색은 그림자극물에서 단정성이 더 높게, 개성은 더 낮게 평가되었다. 자극물 제작방법과 헤어스타일의 경우 능력 요인에서 짧은형 헤어스타일은 사진보다 그림자극물의 경우 더 능력이 낮게 평가되었다. 사교성, 개성, 활동성 평가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빨강 스웨터를 착용한 사진이 가장 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스웨터를 착용한 경우, 사진자극물에서 개성이 낮게 평가된 반면, 짧은 헤어스타일에 점퍼를 입은 경우는 그림자극물이 사진보다 훨씬 더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사진자극물은 짧은형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스웨터를 착용했을 때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점퍼 차림에 중간형의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중간형 헤어스타일에 남색 점퍼나 베이지색 스웨터를 착용한 경우 단정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진자극물이 그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스웨터 차림이 점퍼보다 능력, 활동성, 사교성이 더 높게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단정성 평가에서만 그림자극물이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는데, 이는 의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윤곽선이 사실보다 더 뚜렷이 표현되어 사진에 비해 그림이 더 단정하게 지각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피험자를 20대 남자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고 의복유형을 상의는 점퍼와 스웨터로, 하의는 청바지로 한정하여 다양한 의복유형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외모단서로 사용한 헤어스타일도 두 가지 스타일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다양한 자극물을 사용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자, 정복남, 문주영. (2007).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이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2(3), 496-509.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강혜원, 이주현. (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 (제1보)-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회지*, 14(1), 31-43.

김영인, 한소원. (2000). 한국 성인 남녀 선호의복의 색채와

- 색채이미지. *한국색채학회지*, 14, 47-54.
- 김재숙. (1991).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 연령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여성 노인의 의생활 양식과 관련지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숙, 류지원. (2004). 헤어길리와 헤어컬러가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9/10), 1320-1328.
- 김현지. (2003). 남성 선거 입후보자의 옷차림이 유권자들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미우. (1992).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311-326.
- 남성들의 외모 가꾸기에 대한 조사. (2006, 1. 27). 엠브레인. 자료검색일 2006. 6. 3, 자료출처 <http://www.embrain.com>
- 노지영. (2001). 직장 남성의 이미지 컨설팅을 위한 측정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지은. (2001). 여성의 의복스타일이 첫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순천, 이순홍. (2003).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중년 남성 정장디자인 (제2보). *한국위류학회지*, 27(11), 1260-1269.
- 박혜원. (2006). 패션디자인 분석 시스템(Web-SFAS)활용 국내 남성 스트리트 패션 조사 분석-2005년 S/S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19-1530.
- 배혜진, 정인희. (2006). 남자 대학생의 의복착용상황별 추구이미지와 패션상품통일체. *한국의류학회지*, 30(7), 1135-1145.
- 송선옥, 이인자. (200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69-378.
- 신소진. (1994).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홍선옥. (2004).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의복색 이미지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55-66.
- 이선경. (1993). 남성복 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미. (1992).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교. (2000). 의사가운의 형태 및 색상과 관찰자 특성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격식차림, 색 및 태락의 영향-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340-351.
- 임지영. (1996). 넥타이 무늬와 양복과의 배색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의 시각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제기연, 이경희. (2006). 남성 판매사원의 정장스타일에 대한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30(5), 762-771.
- 주소현, 이경희. (1999).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3(1), 78-89.
- 하경연, 이명희. (2008).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복식문화연구*, 16(2), 293-304.
- 황미선. (2004). 남녀 대학생의 캠퍼스웨어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진숙, 나영주. (1999). 남자 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 이미지 선호의 관계 연구. *복식*, 49, 65-72.
- Bell, E. L. (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8-12.
- Chambers, B. G. (1965). *Color and design*. New York: Prentice-Hall.
- Francis, S. K. & Evans, P. K. (1988). Effect of hue, value, and garment style on college recruiters' assessments of employment potential.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7, 87-98.
- Molloy, J. T. (1978). *Dress for success*. New York: Warner Books.
-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10-16.
- Peterson, D. & Curran, J. P. (1976). Trait attribu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93(2), 331-339.
- Radeloff,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olor preferences of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59-67.
- Sebastian, R. J. & Bristow, D. (2008). Formal or informal? The impact of style of dress and forms of address on business students' perceptions of professor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3(4), 196-201.
- Vrij, A. (1997). Wearing black clothes: The impact of offenders' and suspects' clothing on impression forma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47-53.